

광주에 1인 가구만 26만...전체가구의 40% 차지

20·30대 층장·동명동 일대...60대 이상 본량·동곡 등 연 1만가구씩 증가...데이터기반 맞춤형 정책수립 활용

광주시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 전체 가구 수는 65만2355가구(총 인구 143만 명)로, 이중 1인 가구는 26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1인 가구 분석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와 광주시 1인 가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분석,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분포를 광주시 행정동 지도 위에 표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 1인 가구는 2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0.7%로 나타났다. 2017년 20만 가구, 2018년 21만 가구, 2019년 22만 가구, 2020년 24만 가구, 2021년 25만 가구였던 1인 가구가 2022년 말에는 26만 가구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수 비율도 2017년 33%, 2018년 35%, 2019년 36%, 2020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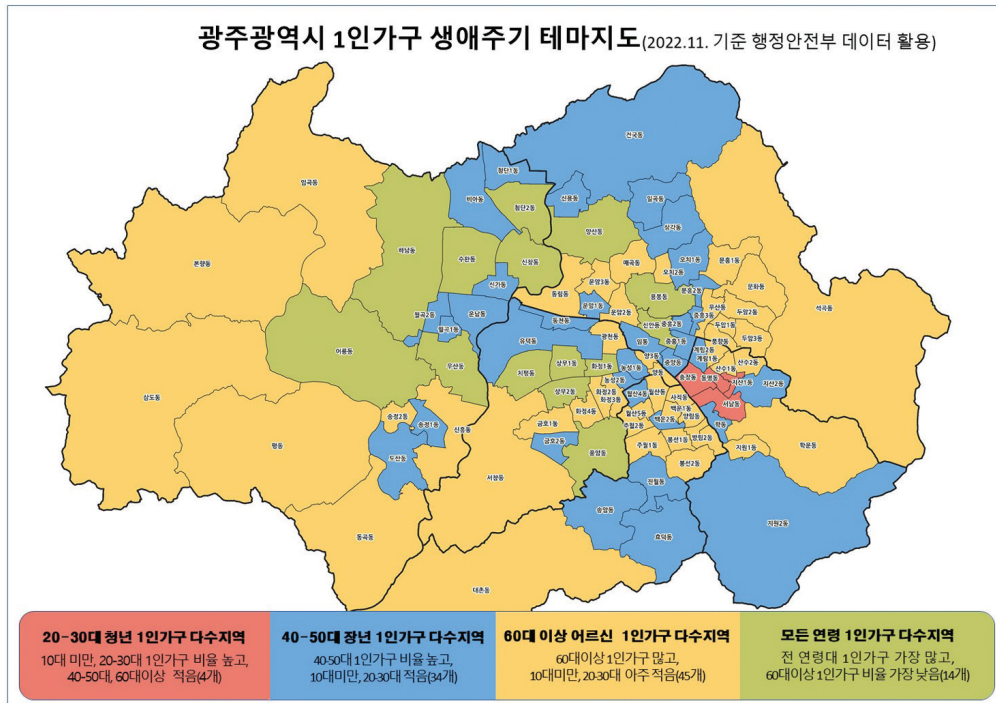
2021년 39%, 2022년 40%로 꾸준히 증가세다. 성별로는 남성이 13만4000가구(50.7%), 여성이 13만 가구(49.3%)로 남성 1인 가구 수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1인 가구를 연령별·행정동별로 그룹화하는 군집분석 결과, 모든 연령의 1인 가구는 용봉동·수완동·침단2동 등 14개 동에 다수 거주했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30대는 서남동·충장동 등 4개 동에, 40·50대는 비아동·신용동 등 34개 동에, 60대 이상은 본량동·동곡동 등 45개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광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분류된 결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정책 결정이 주로 실무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다면,



광주 생애주기별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 지도. (지도 = 광주시 제공)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이 시정 전반에 활용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이 되어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과 분석수요 등을 민첩하게 파

악해 과제를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전남도, 9월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 개최...참여기업 모집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오는 9월22일 개최하는 '2023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직종은 사무직, 관리직, 생산직, 서비스 직 등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서부권 지자체인 무안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광군을 비롯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한전KDN,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지사, 목포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다.

기업체-구직자 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결과 취업기회 확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박람회 참여 기업에는 인재채용·면접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업홍보와 함께 원활한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현장 채용·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 기업 모집은 1차 25일 마감하며 최종 31일 종료된다.

신청 요령은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인·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일자리 매칭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전남서 위탁생산한 구강청결제 일본서 최고 인정

담양 (주)에코월드팜 '오쿠치', 저자극 제품으로 국내도 70% 점유



전남도는 담양의 (주)에코월드팜에서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구강청결제 제품이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에코월드팜이 2021~2022년 위탁생산한 '오쿠치'는 일본의 대표 뷰티 리뷰 사이트인 코스메(cosme)에서 뷰티상품(beauty goods) 부문 우승자로 선정되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입 안의 오염과 양치 후 잔여물을 제거하고, 입 냄새의 원인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굳혀 씻어내는 구강 세정제다. 스틱 유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물로 헹굴 필요가 없어 인기가 높다. 레몬, 민트, 체리 등 다양한 맛과 저자극 가글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에코월드팜은 일회용 구강청결제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이다. 최근 3년 주력 시장이었던 일본에서 자사의 일회용 스틱가글 위탁생산 제품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구강청결제, 살균·탈취제, 손소독제, 바다위시·헤어 제프, 치약 등 다양한 제품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8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에코월드팜을 전남형 차세대 수출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 수출기업 중 미래 수출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 수출 5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3년간 1억 원을 지원한다.

오석중 에코월드팜 대표는 "구강청결제는 무알코올, 무색면활성제, 무보존제, 무합성향균제, 무색소 등 5무(無) 기술을 접목한 저자극 성분으로 어린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에코월드팜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전남의 대표 중소기업으로도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50년 단골' 광주은행 조선대 지점 폐쇄...조대병원점과 통합

9월1일부터 조대이공대에 파출수납창구 신설

광주은행이 '50년 단골'인 조선대학교의 주거대 은행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오는 9월1일부터 조선대지점이 사라지고 조선대병원 지점으로 통합 운영된다.

16일 지역 금융가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경쟁에서 조선대 주거대은행 지위를 잃은 광주은행은 오는 8월31일 학교와의 업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조선대 지점을 폐쇄한다.

대신, 광주은행은 9월1일부터 조선대병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켜 조선대지점의 업무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또 조선대이공대에 광주은행 파출수납창구를 늘 예정이다.

조선대는 지난 7월 신한은행을 주거대은행 사업자로 최종 결정했고 오는 9월1일부터 신한은행이 주거대은행을 맡는다.

광주은행은 수익계약 방식으로 50여년간 조선대 금고를 맡아왔지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신한은행에 고배를 마셨다.

한편 광주은행은 조선대 주거대은행 지위 상실과 관련해 관련, 임원 2명 등 4명에 대해 서면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없던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면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역 금융가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라면 직위해제 후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서면경고에 그쳐 의외다"고 전했다. **서선욱 기자**

전남도 '매실 냉해' 작과불량 재해보험금 37억 원 지급

전남도가 올봄 이상기온으로 지은 피해(냉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원을 지급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선 지난 4월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작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광양 18억900만원, 순천 9억7800만원, 보성 4억600만원, 곡성 2억6553만원, 화순 1억1283만원, 고흥 7766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ha, 순천 139ha, 곡성 47ha, 보성 17ha, 화순 16ha, 고흥 9ha, 구례 3ha 등 전체 438ha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 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같은 시기 냉해를 입은 배·사과 등의 품목도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개 품목에 1660억원을 투입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700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3. 8
3.사업운영기간 : 2023. 08 ~ 2048. 07(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7. 31. ~ 2023. 08. 16.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교산1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200-1, 200-2, 201
2 교산2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3 교산3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4 교산4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5 교산5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6 교산6호 태양광발전소	박금자	99.56	
7 교산7호 태양광발전소	김지영	99.56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급여비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7배
4분위	125,531원	2.1배
3분위	79,147원	2.7배
2분위	48,103원	5.3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홈페이지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시간에 어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합니다.

국민에게서 실천을 선도합니다.